

●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이즈노 조하치와 회반죽을 흙손으로 볼록하게 조형한 회화



아메노우즈메노
미코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사루타히코노 미코토



회반죽을 흙손으로 볼록하게 조형한 회화

「아마노우즈메노 미코토의 공적」

요리키 신사(도쿄도 시나가와구

히가시시나가와 1-35-8)에 있는, 회반죽을

흙손으로 볼록하게 조형한 회화

「아마노우즈메노 미코토의 공적」은 이즈노

조하치(1815~1889)의 작품으로, 시나가와구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아마노우즈메노 미코토,

사루타히코노 미코토의 세 신을 회반죽을

볼록하게 입체적으로 조형했습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태양을 지배하는

신으로, 최고 지위의 여신)는 스사노오노

미코토의 난폭함 때문에 동굴(아마노이와야)

속에 숨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빛을 잃고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신들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다시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동굴 앞에서 연회를 열고, 아메노우즈메노 미코토가 익살스러운 춤을 선보였습니다. 춤을 본 신들이 웃는 소리에 이끌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바위 문을 조금 연 사이에 밖으로 끌려 나와 세상은 다시금 빛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아메노우즈메노 미코토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손자인 니니기노 미코토가 천상계(다카마노하라)에서 지상계로 내려왔을 때, 사루타히코노 미코토에게 길 안내를 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아메노우즈메노 미코토의 이러한 공적을 표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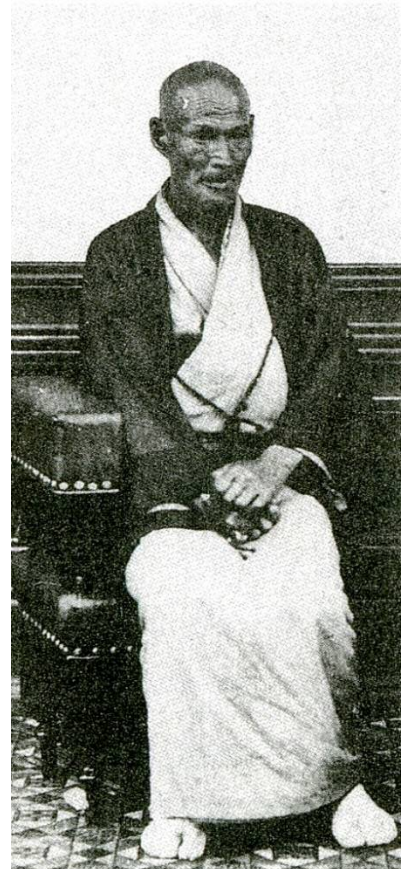
아메노우즈메노 미코토의 가슴을 만지면 젖이 잘 나온다고 전해지는데, 요리키 신사의 작품도 많은 이들이 만진 탓에 변색되었습니다. 사루타히코노 미코토는 비교적 훼손이 적어 당시 모습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즈노 조하치

이즈노 조하치는 1815년, 이즈(지금의 시즈오카현)에서 태어났습니다. 12세 때부터

미장일을 배워 19세 때 에도로 나갑니다. 21세부터 25세경에 걸쳐 가노파의 회화를 배우면서 연구를 거듭하여, 회반죽을 입체적으로 볼록하게 형태를 만든 것에 채색을 하는 기법 및 회반죽으로 조각을 만드는 기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회반죽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작업이라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1872년에 조하치는 여인숙 사가미야의 의뢰를 받아 시나가와에 왔습니다. 아래 표에 나타나 있듯이 조하치는 이 시기에 시나가와에서 많은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이즈노 조하치

1889년에 별세할 때까지 조하치는

에도(도쿄)와 이즈를 중심으로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은 주로 건축물의 장식이었기 때문에 도쿄의 작품 대부분은 간토 대지진과 전쟁의 화마로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도쿄도 내에서는 시나가와구의 요리키 신사와 젠푸쿠지 절, 그리고 아다치구의 하시도 이나리 신사에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조하치의 출신지인 이즈에서는 이즈노 조하치 미술관 및 조칸지 절 등에서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젠푸쿠지 절 본당(부분)

▼시나가와에서의 조하치 및 그 문하생에 의한 작품(1872·73년)

장소	작품
사가미야 (도쿄도 시나가와구 기타시나가와 1)	「물고기 그림」 등 [소실]
요리키 신사 (도쿄도 시나가와구 히가시시나가와 1)	「아마노우즈메노 미코토의 공적」 [현존]
젠푸쿠지 절 (도쿄도 시나가와구 기타시나가와 1)	「용」, 「사자」, 「국화와 새잎」, 「승천하는 용, 내려오는 용」 [현존하지만 박락(剝落)이 심함] ※「국화와 새잎」은 문하생과의 합작품이라는 설도 있다.
소데가사키 신사 (도쿄도 시나가와구 히가시고탄다 3)	「스사노오가 야마타노 오로치를 퇴치하는 그림」 [소실]
쇼토로 (도쿄도 시나가와구 기타시나가와 1)	「모란에 사자」, 「물에 거북이」, 「학」 [소실] ※대부분 문하생의 작품으로, 조하치는 중요한 부분 외에는 감독·지도만 했다는 설도 있다.